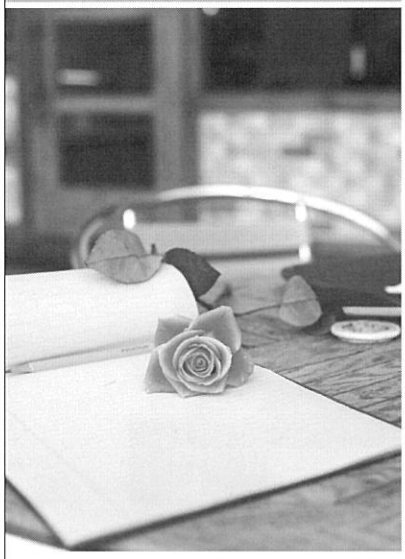
급변하는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급선무

본지 · 김한웅 상무



미국과 동유럽 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전 세계 곡물가격이 꿈틀거리고 있다.

최근 세계은행에 따르면 지난 6~7월 사이 밀과 옥수수 가격이 각각 25% 상승했고 대두 가격은 17%나 뛰었다고 한다. 또한 지난달 말 선물시장에서 대두가격은 장중 부셸당 17.78달러까지 뛰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죽으나 사나 배합사료가격에 목매달아야 하는 우리 육계업계로서는 큰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소, 돼지 등 축산업계 전반에 걸쳐 엘리뇨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세계 곡물가격의 불안정성에 대비하고자 일본 축산업계를 벤치마킹해 "배합사료 안전 기금" 도입을 서두르며 의원입법을 통해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상하리만큼 육계업계에서는 별 관심 없이 침묵하고 있다.

곡물가격의 폭등에 대비, 일부 계열화사업체의 경우 중 · 단기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는 있으나 대다수는 걱정만하며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종계 과잉 입식에 따른 육계가격 폭락과 폭염, 태풍 등으로 하루하루를 견뎌내기가 버거운 상황의 연속이어서 그런지 지금은 조금 기운이 빠져 보인다.

하지만 닭고기 업계의 특성상 마냥 지켜보기에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제분업계, 식용유업계, 제빵 · 제과 업계는 원자재 인상에 대한 것을 고스란히 판매제품가격을 연동시켜 최종 판매가를 인상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세계 곡물가격의 영향을 맞으면서도 우리업계는 닭고기 판매 가격에 이를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다.

모든 산업이 마찬가지이지만 산물을 생산해서 생산원가에 적정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것이 경영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일시적으로 가격하락과 상승요인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익이 전제되지 않는 경제활동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닭고기 업계는 어떠한가.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닭고기를 판매하는 경우가 비일비재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닭고기 업계가 생산비 이하에 닭고기를 파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소비량이 공급량을 따라가지 못하는데 가장 큰 원인을 두고 있다.

적정 물량을 생산하고 적정한 이윤을 붙여 판매한다면 더 이상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지 못하다는데 있다. 서로가 영업이 가능한 물량만 생산하자고 다짐하지만 이를 곳이 곳대로 믿는 사람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그 이면에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호불신의 굴곡이 너무 큰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몇 년을 주기로 심심치 않게 곡물파동은 이어져 오고 있고 우여곡절을 겪으며 나름대로 무난하게 파고를 넘어왔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순조롭게 넘어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당장 우리나라 경제는 수입과 수출이 동시에 감소하는 불황형 흑자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주머니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가계는 소비위축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닭고기 소비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결국 생산비는 올라가고 소비는 줄어들어 업계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더욱이 곡물사료에 대한 의존도가 타 축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닭고기 산업으로서는 사료곡물의 가격폭등에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특히 닭고기 판매 가격결정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육계산업의 현 체제로서는 급변하는 시장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분명히 마련돼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로든지 닭고기 업계 전체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혼자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아무리 합리적인 방안이 제시돼도 내부에서 서로를 신뢰하고 믿는 상황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다 공염불이 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업계는 닭고기업계의 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는 불신감이 바닥에 깔려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대의를 위하여 서로 양보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이다.